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 겸손한 증거자 세례 요한 I

(요 3:22-30)

이종윤 원로목사

### 1. 예수님의 세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요 3:22)

요 1:15-36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처음 증언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요한의 또 다른 증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요 4: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받는 세례입니다(롬 6:3-5).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을 터이니 십자가 죽음과 세례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이지 요한의 세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만 내 죄가 물속에 들어가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김 받았다고 하는 증표를 받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므로 우리는 구태여 요단 강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하나의 의식으로서 우리의 죄씻음 받은 표입니다. 그렇다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히 9:10을 보면 씻기우는 증표가 세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만 가지 죄는 율법을 행함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만 용서받고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요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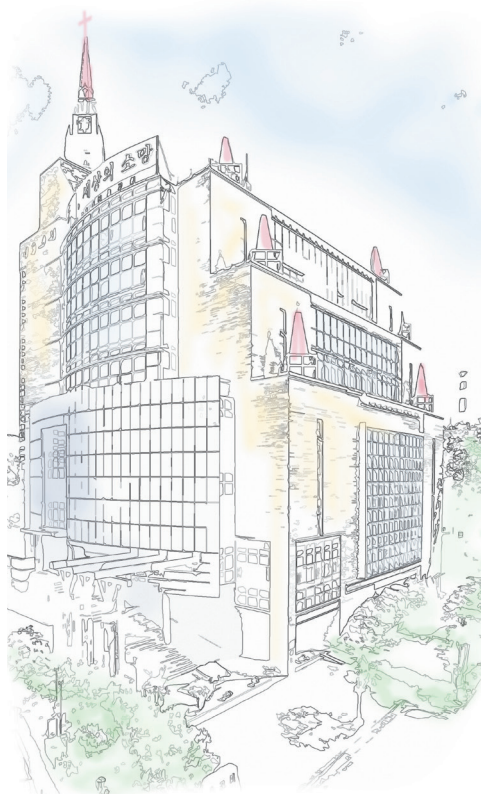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변론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정결예식에 대한 변론입니다. 여기 ‘정결예식’은 헬라어로는 ‘카사리스모스’라는 말로 ‘뱀티스마’(세례)라는 말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예식’과 ‘세례’는 어원학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더러운 것에서 씻기움을 받는 것, 죄로부터 씻기움을 받는 것, 성결케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요 3:26)라고 했습니다. 요한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지금 사람들의 인기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데’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보시옵소서’라는 감탄사로서 노골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보시오, 지금 당신이 증거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니까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조리 그분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간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님이로 하여금 질투 감정을 일으키게 해서 예수님에게 대적하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비교 감정으로부터 생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성취감도 없어집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가 행복자입니다. 남보다 뒤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천지개벽이 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천지개벽이 되기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고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드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교하고 대결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성도간 거리두기를 고려한 예배

I·II·III·IV 부 예배 참석자 사전에 신청 받아  
온라인 예배와 병행할 예정 / 찬양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지난주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에서의 예배를 진행하되 성도간 거리를 두는 부활절 예배를 총 208명의 성도가 참여하여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드렸다.

금주에도 변함없이 지난주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본래의 주일 1, 2, 3부 이외에 임시로 신설한 4부 예배를 오후 4시에 드린다. 성도들은 주중에 각 교구별로 조사 시 신청한 예배에 되도록 참석하기 바란다.

단, 1부 예배는 더 이상 참석할 숫자적 여유가 없으므로 새로이 참석할 성도들은 가능한 2, 3, 4부 예배로 선택해 주기 바란다. 당분간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는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교회학교는 현재와 같이 부서 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 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 하되, 교회에서의 부서 예배는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이 정식 등교수업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차후에 시행하고자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질환 증후가 있는 성도 또는 최근 2주 이내 해외를 다녀오신 가족이 있는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 주시기 바란다.

성도 여러분 모두 현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손 소독 후  
주중에 선택한 예배  
명단 확인 후 싸인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 체크 후 입실



흰 안전띠로 막은 좌석은  
앉지 않습니다.



안전띠가 없는 좌석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에 앉아주세요.  
장의자 1개 당 2인 좌석

## <성도간 거리두기 예배를 위한 입실 순서>



## 최희연 성도(청년 1부 서기)

지난달 말부터 서울교회 청년부는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부 리더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회의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임원단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동안 서울교회가 농어촌100교회 후원 운동으로 지원해 오던 화방교회의 성도님들과 마을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물 꾸러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부원들은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을 통해 모은 돈으로 기쁨과 위로의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11일, 청년부 전도사님과 리더들이 교회 입구에 모여 어르신들께 보낼 햄, 참치 캔, 홍삼 등의 선물을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와 함께 포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년부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이 선물 꾸러미는 지난주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강인·허숙 김지수·김순진 윤종현 무명 1  
백도환·석준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님들께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 예) 홍길동십일조
- 홍길동선교
- 홍길동주일
- 홍길동비전
-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화요일에 화방교회에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년부가 주일날 교회에서조차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짧은 시간 동안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상보다 회비가 적게 모이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부 리더들의 적극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회의에서부터, 청년부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예상보다 많은 회비가 걷힌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뜻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부원들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가깝게, 뜻은 하나로 굳게 뭉쳐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화방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와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가는 철저한 회개와 깊은 기도 속에 써야 한다

다음은 서울교회 박정선 은퇴장로(한국찬송가작가회 공동회장)와 가스펠투데이와의 인터뷰 내용을 가스펠투데이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으로 지면 상 요약하여 실는다. 전문은 가스펠투데이(<http://www.gospeltoday.co.kr>)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찬송가는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 말씀이 그대로 담긴 곡이다. 서울교회 박정선 장로는 한국교회가 통일해서 부르고 있는 새찬송가 중 3곡을 작곡했다.

## 작곡의 길을 처음 걷게 된 때는 언제인가?

처음 '작곡'이란 직업에 비전을 품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다. 당시 학업을 통해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작곡가를 접하고, 그들과 같은 작곡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꿈을 키우며 누렇게 바랜 종이에 오선을 긋고 그 음들을 오선 위에 적곤 했다. 그 종이들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인이었는가?

그렇다. 지금은 소천하신 어머니가 45년 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시골 마을에 개척교회를 세우신 기독교 집안이다. 하지만 정작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 누나를 따라 산 너머에 있는 교회(간현감리교회)에 처음 갔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곳, 저곳에 있는 교회를 전전하며 신앙을 차츰차츰 키워오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29년째 서울교회(이종윤 원로목사)를 섬기고 있다. 교회에서 지난 1992년부터 지휘자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장로로 피택됐고, 서울교회의 음악 전반을 총괄하는 찬양위원장으로 섬기다가 2015년에 은퇴하였다.

## 서울교회 지휘자 외에도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사역인가?

지금은 대학과 교회에서 모두 은퇴한 명예교수이자 은퇴장로로 있다. 하지만 찬양사역은 지금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교회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찬양대 세미나와 찬양훈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회 위치가 시골 끝자락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곳은 무조건 간다. 또한 세미나와 강의료는 일절 받지 않는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다른 나의 사역지는 한국찬송가작가회이다. 현재 공동회장(음악)으로 새찬송가 작곡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작성가 작곡과 찬양곡집 편찬을 위해 출판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면 현지 교포 교회를 위한 찬양대 세미나와 찬양대 훈련을 나에게 요청해 오기도 한다. 그러면 이것 역시 나는 무료봉사로 즐겁게 하고 있다.

한국교회 찬송가 중 직접 작곡한 곡이 여러 곡 있다고 들었다. 어떤 곡들이 있는지 또 각 찬송 곡들을 작곡할 때 받은 은혜나 심경을 소개해 달라.

현재 교회에서 사용되는 새찬송가 중 직접 작곡한 곡들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596장 영광은 주님 홀로' 등 총 3곡이다. 각 곡을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 위 세 곡을 작곡한 배경과 작곡의 과정 등은 가스펠투데이 전문 참조 -

## 마지막으로 향후 비전에 대해 말해 달라. 또 한국 교회를 위해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함께 나눠 달라.

기성교회들에게 꼭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교회에서 음악으로 봉사하는 음악전공자 혹은 음악 전공 학생들의 지원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날 찬양으로 봉사하는 젊은이들은 후일 찬양사역자로 각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만 해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대학교에 자리 잡은 뒤부터, 교회에서 완전봉사를 시작해 지금의 내 자신까지 이르게 됐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한다는 생각으로 음악 전공자 및 음악 전공 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면 후일, 그들이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 잡고 열심히 봉사하리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비전으로는 현재 8악장 구성의 '칸타타 주기철 목사' 찬양곡을 작곡하고 있다. 이 찬양곡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감 있는 곡으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 여러 곳에서 나 자신을 필요로 하여 찬양 세미나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시편 96편 1-2절 말씀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유년부(부장: 장윤기 집사)와 초등부(부장: 김혜연 집사)는 온라인 예배가 6주째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박미라 전도사님께서 매주 수고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배를, 교회를 기억하고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사랑의 택배'를 지난 주중에 발송하였습니다.

1. 전달 방법 : 각 학생들에게 개별 택배 발송을 하였으며 택배비 절약을 위해, 지역별 자원교사 10여 명이 직접 배송하였습니다.

- 수서 2가정 (2개) - 송미령 권사
- 은마 아파트 6가정 (10개) - 이종범 집사
- 잠실지역 4가정 (7개) - 오윤걸 집사
- 대치우성 4가정 (5개) - 임미경 집사

- 역삼중 근처 4가정 (5개) - 이수경 집사
- 분당 갑 5가정 (8개) - 노애리 집사
- 분당 을 2가정 (3개) - 김민아 집사
- 경기도 하남시 3가정 (5개) - 박미라 전도사
- 경기 용인 2가정 (2개) - 유수진 집사
- 대치 삼성, 쌍용 (3개) - 김연화 집사
- 우체국 택배 (18개)

## 2. 사랑의 택배에 무엇이 들었나요?

각자의 공과책, 성경읽기표, 메세지 카드, 장난감 2종, 핫한 스낵류 7종, 부활절행사 참가자 대상 상품, 엄마간식 2종 (아이들 때문에 목 아프지 마세요♡) + 보고픈 마음 백만 손가락을 담았습니다!

(4면에 계속)



유년부·초등부에서 지난주에 진행한 '사랑의 택배' 포장 준비 과정과 배송 인증 샷



등 정

■ 임명 : 백승경 권사(9교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교육센터 과학부 주임교수

전교인 성경읽기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20일	월	왕상 19-21		사 44-53	
4월21일	화	왕상 22		사 54-66	
4월22일	수	왕하 1-4		렘 1-6	
4월23일	목	왕하 5-7		렘 7-13	
4월24일	금	왕하 8-10		렘 14-20	
4월25일	토	왕하 11-14		렘 21-27	
4월26일	주일	왕하 15-17		렘 28-32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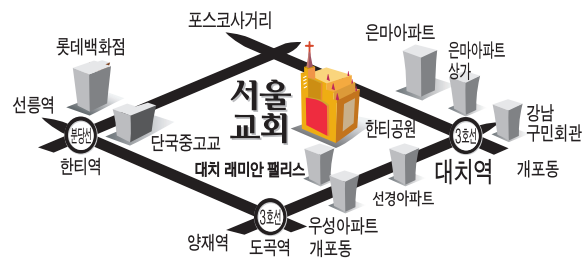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2.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4. 나라를 지켜 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